

프로젝트 4 참여 전시 기획서

김용익

작품의 기본 개념은 서낭당의 돌무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맹이 쌓아 올리기를 좋아한다. 산행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돌무지나 그 주변에 돌맹이들을 쌓아 일종의 돌탑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남이 쌓은 돌탑위에 조심스레 돌맹이 하나를 올려 놓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근저에는 서낭당 돌무지에 돌맹이를 던져 안녕과 복을 빌던 민속 신앙이 있다고 본다.

폐선부지의 “적절한” 장소에 포크레인으로 쇠석들을 긁어모아 돌무지들을 만들고 그 주변에 그 돌맹이들을 쌓아올려 일종의 작은 돌탑들을 만든다. (이때에 광주시내 초중고생들이 참여하도록한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재미로 계속 돌탑을 쌓아가리라 기대된다.

이 돌무지 작업은 자연물인 돌을 쌓아놓는다는 점에서 기념비성이 배제되고 예술작품으로 군림하지 아니하고 자연경관 속에 스며드는 에코페미니즘적 작업이며 지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작품이 지속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작가가 관객위에 군림하지 아니하는 민주적 공공미술 작업이다. 또한 전체 비용이 적게들고 제작 설치 과정에서 쓰레기발생이 전혀 없는 저 엔트로피 작업이며 폐선부지에 깔린 쇠석들이 정리되고 경우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맹이들은 재활용이나 철수가 용이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공공미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